

위드 코로나 첫 주말, 기본 지켜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거리두기·손씻기·마스크 착용>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풀어진 방역의식 곳곳서 목격 돼 광주·전남 3일간 115명 확진...전국 하루새 1000명 늘어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적·세계적 흐름인 위드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2년 가까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일궈낸 K방역이 해이해진 방역의식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코로나 차단 여부는 매 상황의 초기 방역태세가 결정하는 만큼 이번 위드코로나의 성패는 첫번째 주말과 11월의 방역 여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3일 서울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15명으로, 앞서 지난달 29~31일 104명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2일 1588명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2668명으로 무려 1000명 이상 증가했다.

당장 위드코로나가 결정된 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헬러데이를 맞은 광주 도심 곳곳은 경각심을 상실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들은 얼굴에 분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만나 사진을 찍는 등 방역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근 풀어진 방역의식은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충장로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마스크를 껌뻑하고 입장하거나 자리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손님들도 많다"며 "뉴스를 보더라도 백신 항체율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돌파감염했다는 소식이 잦던데, '위드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해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나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니 안전할거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지난 1일까지 닷새간 고흥 금산면과 도양읍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주민 71명 중 70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른바 돌파 감염자로 확인됐다.

또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의 중요성은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선구자적인 영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탓에,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7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적도 있으며, 현재도 4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인접국인 프랑스의 경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수칙 덕에 위드코로나 시행에도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생활방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위드코로나로 개인 간 접촉이 늘어났다. 바이러스는 접촉기회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파가 빨라진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 백신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세가지부터 지켜나가야 회복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르딕 워킹으로 빠르게 걷자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걷기에 관심있는 북구관내 주민들이 시단법인 한국노르딕워킹 연맹의 도움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 등을 교육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흥군의회, 아직도 돈봉투 연수라니

일부 실·과·소장들 수십만원~100만원씩 거둬 전달 강원도까지 찾아가 '과잉 의전'도...청렴 장흥 무색

장흥군 일부 공무원들이 연수에 나선 장흥군의회 의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내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과 횡성 일원에서 연수를 진행 중이다. 연수에 는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을 포함 7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7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 장흥군 일부 실·과·소장들이 의원들에게 건넨 격려금을 두고 하위직 공무원들 사

이에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장흥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실·과·별로 수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거출해 의회연수 격려금으로 건넸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

이도 모자라 조모 기획홍보실장과 이모 예산팀장 등 3명은 강원도 현지 연수장까지 찾아 격려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상황 속 과잉 의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실·과·소 서무담당 공무원들은 "지금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렴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7기 군정에

도 역행한게 아니냐"며 술렁거리고 있다.

이에 왕윤재 장흥군의회 운영위원장은 연수 출발전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 등 일부 간부들이 나와 "의원님들 차값이나 하신라"며 봉투를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언론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일 연수회 현지에 찾아온 조모 실장에게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왕 의원은 "순간 생각이 짧아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민선 7기 정중순 장흥군수가 "선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며 내건 '청렴 장흥' 슬로건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흥=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전남대 로스쿨 4명, 신규 검사 최종 합격

최근 발표된 2022년 검사 신규 임용시험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재학생과 졸업생 등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재학생은 김민재·박덕승·한태희 씨 등이며, 졸업생은 김성천씨이다.

검사 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기록평가 및 인성검사, 3차 역량(직무·발표표현·토론설득)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 발표를 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0년부터 검사임용 전문지도교수를 임명해 검사임용을 대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순욱 지도 교수는 "저학년 때부터 검사 임용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향후에도 검사 임용을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낼 계획을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제' 9일 개막

광주 남구 관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화합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 대향연 무대를 선보인다.

4일 남구와 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제2회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남구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창작과 공연, 전시 등 다방면에서 8개월간 구슬땀을 흘린 성과를 선보이는 무대이다.

본무대 행사는 오후 1시부터 남구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남구 장애인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청년 구직자 AI·VR 면접 체험하세요" 광주 북구, 선착순 모집

광주시 북구가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 적용에도움을 주고자 연말까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역량검사 및 VR(가상현실) 면접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먼저 AI 역량검사는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50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제 채용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된다. VR 면접은 고글 형태의 기기를 착용하고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30분 동안 기술문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

뤄진다.

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참여 대상이며 북구청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문구독료
30%
소득공제

세상에서 가장 알찬 소득공제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신문 -
이제 공제받는 즐거움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의 30% 소득공제 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